

다산포럼

유지나



폭죽을 일용할 양식처럼 먹는 와중에 '더 레이디'를 보았다. 아웅산 수치의 극적인 삶을 담아낸 영화이기에 여성관객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뉴스에서 간간히 접하던 그녀를 두 시간에 걸쳐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감정구조를 만들어 낸다. 영화가 끝난 후 눈물 어린 관객의 얼굴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나 역시 그중 하나다.

이 영화를 보노라면 왜 눈물이 나는 걸까? 흥공 액션영화 환금기 '에스 마담'이었던 양자경의 변신이 감동적이어서? 가정주부라는 사회적 삶보다 조국 민주화에 인생을 건 여성에게 감동을 주어서? 버마였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남의 일이 아니어서? 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그 가운데 내 마음을 깊이 관통한 것은 자유와 평화로 피어나는 여성의 존재감이다. 남성 영웅이 넘쳐나는 영화세상에서 위대한 여성을 만나는 건 매우 희귀한 일 이니까 말이다.

아주 어린 시절, 두 살 때, 아버지 아웅산 장군이 딸 수치의 머리에 꽃을 꽂아준다. 귀엽고 사랑스런 딸에게 보여준 자연스러운 부성애이다. 곧 이어 그는 쿠데타

를 일으킨 군부에 암살당한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러 영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 뒷바라지를 하며 살던 가정주부의 삶은 급변한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고향에 잠시 돌아온 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자유로 피어난 아웅산 수치

어머니를 간호하며 그녀는 민주화 운동으로 죽어가는 청년들을 목격한다. 마침뜨게 달아오른 민주화 투쟁 열기 속에서 그녀가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세력도 있다. 총선결과도 무시하는 군부독재 치하에서 가시밭길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임종 후,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그녀는 모국에 남기로 한다. 영국으로 떠나면 군사독재 정권이 그녀가 모국으로 돌아올 기회를 박탈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결단의 순간이다. 가족을 챙길 것인가? 아니면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건 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 바로 이 순

간의 결단으로 그녀는 민주화의 꽃씨로 거듭난다.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그녀의 연설, 평화의 꽃을 꽃고 나선 그녀의 존재감은 총선 승리에 큰 기여를 한다. 그러나 총선 결과도 무시하는 군부 독재정권은 그녀를 가둔다. 이후 그녀는 15년간 가택연금에 당한다. 노벨평화상을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하지만 그 자리에도 단연히 참석할 수 없다. 그런 압박 속에서도 피해를 당하리라는 공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길들여진 탓이다. 여리고 가냘팠 보이는 그녀가 민주화와 자유로움, 평화투쟁의 꽃으로 피어난 것은 운명적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풀아가는 마음 수련의 힘인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여성의 탄생은 가능하다. 여자라고 좁게 가족에 갇혀 살라는 법은 없으니깐. 그녀에게 경배를 돌리며 그녀를 닮고 싶다. 양자경도 그런 열망이 있기에 '니키타'와 '제 5원소' 같은 여전사 영화를 만든 킷 배움에 '더 레이디'를 만들자고 한 것이리라.

* 군부독재가 '아웅산 수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레이디'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우리는 이 세상에 꽃으로 왔습니다. 땅신이 남자인 여자인 어린이든 노인이든, 꽃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평화로워야 꽃이 필 겁니다." 그 말을 전해주던 평화집회

가 '더 레이디'를 보면서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순간 그녀가 영화 속에서, 또 현실에서 말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란 의미가 가슴 깊이 전해온다. 인간이 추구하는 본질적 상태는 자유로움이다. 그런데 그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것은 공포이다. 독재정권은 혹 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독재권력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추구하다 피해를 당하리라는 공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거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길들여진 탓이다. 여리고 가냘팠 보이는 그녀가 민주화와 자유로움, 평화투쟁의 꽃으로 피어난 것은 운명적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을 풀아가는 마음 수련의 힘인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여성의 탄생은 가능하다. 여자라고 좁게 가족에 갇혀 살라는 법은 없으니깐. 그녀에게 경배를 돌리며 그녀를 닮고 싶다. 양자경도 그런 열망이 있기에 '니키타'와 '제 5원소' 같은 여전사 영화를 만든 킷 배움에 '더 레이디'를 만들자고 한 것이리라.

* 군부독재가 '아웅산 수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금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레이디'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우리는 이 세상에 꽃으로 왔습니다. 땅신이 남자인 여자인 어린이든 노인이든, 꽃으로 온 것이지요. 그런데 평화로워야 꽃이 필 겁니다." 그 말을 전해주던 평화집회

기고



박재순

불발대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여름이라 더운 것이 답연하겠지만, 그 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기후변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이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가뭄에 이어 장마, 태풍, 그리고 또다시 폭염이 한반도를 덮고 있다. 이제 가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다.

두어 차례 정맛비가 내리면서 두 달 넘게 지속되던 가뭄은 완전 해갈됐다. 언론과 국민의 관심은 가뭄에 이어 장마, 이번엔 무더위로 옮겨갔다. 이처럼 올 가뭄도 스쳐 지나간 일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가뭄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현상이다. 특히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곡창지대인 미국은 전 세계 곡수 수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데다 중국 곡 수급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어 작황 부진이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가뭄 여파로 당장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 농무부(USDA)와 전문가들은 올해 곡수 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5~30% 감소하고, 공

기후변화의 정치·경제학

는데 이는 국토의 56%가 가뭄상태에 놓였던 1956년 이후 가장 피해가 크다고 한다. 이외에도 미국 대륙의 80% 이상이 건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작물과 경작지, 방목장 등이 18년 만에 최악의 가뭄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미 농무부의 설명이다.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가뭄까지 걱정해야 할까? 다른 나라의 문제가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취약한 식량 자급률에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27%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식량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곡물시장이 단일 유통구조 하에 움직이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가뭄이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 더불어 세계 곡창지대인 미국은 전 세계 곡수 수급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데다 중국 곡 수급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어 작황 부진이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가뭄 여파로 당장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가격폭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 농무부(USDA)와 전문가들은 올해 곡수 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5~30% 감소하고, 공

생산량도 1988년 가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국제 곡물 선물가격은 t당 밀, 옥수수, 대두 등 주요 곡물의 선물가격이 '에그리플레이션'(inflation·농산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2008년 평균 국제곡물 가격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대두와 옥수수는 역대 최고치에 근접했거나 넘어섰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곡물 투기에 따른 가격 상승은 생산량 감소폭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 곡물시장 가격은 국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료를 비롯해 곡에 전량 의존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료값이 올라 생선비가 급등하고 이는 고기값 상승, 관련 상품의 소비재물가 인상, 소비와 경기회복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농산물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식량 수출국의 식량

무기화이다. 2010년 러시아가 가뭄으로 수출제한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생산량이 감소하면 곡물수출국에서는 수출제한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식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국가들로서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수입할 능력조차 없는 빈곤 국가에서는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된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는 가이인들이 10억 명에 이르고 이중 매년 1000만 명 가량이 굶주림 등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역사는 경험의 축적이다.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역사이다.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한 식량생산량 감소에 따른 정치·경제위기를 겪은 사례를 역사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구상에서 인류가 출현한 이후, 가뭄과 홍수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역사적 경험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단지 식량생산량 감소만이 아니라 정치 불안과 경제 위기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우방국과의 군사동맹은 가능하나 식량동맹은 불가능하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에그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NGO 칼럼

무등산국립공원 슬기롭게 해결하자



이재창

'남중지추(囊中之錘)'라는 사자 성어가 있다.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송곳은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는 말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내세우지 않아도 결국은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이다. 무등산은 자신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왔지만 시민의 입에서 무등산의 생태와 비경 등이 회자되면서 마침내 국립공원 지정을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라는 연구용역이 진행됐다. 주요 검토 항목인 식물과 동물의 식생을 평가한 자연생태, 지형과 경관을 평가한 자연경관, 역사와 문화자원을 평가한 역사문화, 지형을 평가한 지형보존, 접근성과 편의 시설을 평가한 이용 편의에 대해서 우수하면서도 기존의 국립공원들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광주시민이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 대다수는 무등산의 국립공원 지정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무등산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를 잘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염두에 봐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생태를 살리고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이다. 편입지역 주민들은 지난 1971년에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률 때문에 자신의 땅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받으면서 지난 40년 이상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다.

환경부는 지구조정을 하면서 국립공원 편입을 원하지 않는 마을 대부분을 제외했다고는 하지만 일부는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포함됐다.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예산을 확보해 편입부지 매입을 서둘러야 한다. 또 산촌마을 가꾸기 같은 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

국립공원의 관리체제와 시설물 관리에 관한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가장 염려

되는 부분은 시설문제다. 무등산은 도심과 인접해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고, 기존의 국립공원과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국립공원 내에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위락시설, 상가 그리고 탐방센터와 자연학습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국립공원지정이 오히려 무등산을 훼손하게 된다면 무등산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광주시민의 정서와 다를 뿐 아니라 개발론자들에게 개발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로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서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사조, 화인코리아 편법 인수 즉각 중단해야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편법 인수 시도'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사조 측의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화인코리아 탈취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배기운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은 최근 광주고법 제2민사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를 강탈할 목적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담보채권을 사들이고, 주요 공장과 시설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는 등 회생절차 개시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정책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도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조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은 위장 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탈취행위의 전형"이라며 "사조그룹은 초기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에 동의했던 것을 상거해 화인인가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라면 이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편법을 이용해 탈취하려는 행위는 요즘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정면 배치된다. 특히 화인코리아가 파산한다면 수백 명의 종업원과 300여 사육능가, 500여 협력업체가 도산하는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화인코리아는 지난 2년 동안 회사의 자구 노력으로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데다 1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사조그룹의 채권도 상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는 법원과 채권단이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화인코리아에 다시 한번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조그룹도 대기업 담개 화인인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회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소기업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지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인도 체험 사망사고 예고된 인재라니

경남 김해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이 지난 25일 신안군 증도면 해상에 무인도 체험을 왔다가 이 가운데 중·고생 2명이 실종된 지 3일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이번 사고도 안전불감증에 따른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인솔교사들은 현장 시설도 미리 파악하지 않고 무허가 어선에 학생들을 실어 캠프 관계자에 인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학생들은 발달장애와 지적 장애인데도 사전 점검이나 인솔교사 동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행사 측에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학교장과 교사 1명, 사회복지사 9명 등 학교 관계자 11명은 무인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사 측에 학생들을 인계, 4급 무허가 어선에 학생들을 실어 보내고 목포 등지를 관광했다니 여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학교 관계자들은 인터넷상의 사진

만 보고 체험 장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섬은 곳곳에 어패류가 붙어 있는 미끄러운 깎바위를 둘러싸여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다 체험시설은 물론 숙박 및 전기시설 등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니 예고된 참사나 다름 바 없다.

허술한 안전관리와 장비 등도 화를 키웠다. 안전요원 2명이 66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안전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구명재킷도 학생 수보다 적은 60벌만 갖춰져 있었다. 사고 당시에는 자유시간으로 이머지 입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이 꽃다운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경찰은 학교 관계자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담당한 여행사 대표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를 벌여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여행사 측에 학생들이 인계, 4급 무허가 어선에 학생들을 실어 보내고 목포 등지를 관광했다니 여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학교 관계자들은 인터넷상의 사진

無等鼓

"여왕이 뛰어내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벌어진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83)이 헬기에서 점프하는 영상에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다. 평소 근엄과 절제의 상징이었던 여왕이 '보드걸'로 깜짝 출연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상은 지난 3월에 사전 녹화된 것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화 '007 시리즈'로 유명한 배우 대니얼 크레이그,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등장해 주저 없이 상공으로 뛰어내렸다. 때 맞춰 올림픽 스타디움에 진차 여왕이 등장했고 여왕은 침착하게 자리에 앉는 것으로 개막식 관중소 출연을 마쳤다. 런던올림픽조직위 측은 "여왕을 설득하는 데 그렇게 늘 가치가 충돌하는 면이 부각되기 마련이다.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관심으로, 또 이해 당사자들 간의 슬기로운 처신과 배려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무등산의 가치와 광주 정신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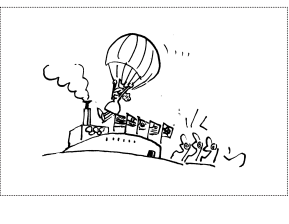
드(The end)'와 '헤이 주드(hey Jude)'를 열창하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여왕이 폭스를 자아내는 영상에 출연하고, 문화적 자산을 말바탕으로 한 개막식에서 올림픽을 통해 경제난을 타개해 보겠다는 영국의 심산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영국은 2011년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 영국이 이렇듯 절박한 상황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내수 진작과 외부자금 유입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음은 불문가지다.

올림픽으로 불황을 뚫어보려는 영국의 몸부림을 들여다보면서 저마다 대통령령이라고 목청 높이는 우리 정치인들이 떠올랐다. 국가와 국민이 원한다면(비록 영상이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헬기에서 과감하게 점프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여왕의 점프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慶完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정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여론매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1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